

순창군, 한국관광 대상 수상

마케팅·장류축제·섬진강 캠핑 페스티벌 등 관광객 유치 인정받아

순창군이 지난해 차별화된 관광시책을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9회 한국관광대상 마케팅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관광대상은 한국관광클럽이 주관하는 상으로 지자체 관광 활성화 의지를 북돋우고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추진하며, 올해 9회째를 맞는 권위있는 상이다.

순창군은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300만 성과를 이어나고 적극적인 마케팅과 장류축제, 섬진강캠핑 페스티벌, 전북도 토탈관광 연계 등 특색있는 관광객 유치 시책을 추진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강찬산은 4개월 내내 120만 관광객이 몰리면서 단순 등산객이 아닌 가족단위 힐링캠퍼로 자리잡았으며 전북도 토탈관광 완성에도 한몫을 했다. 향기오도캠핑장은 야간 파노라마 LED조명, 향기터널 다목적 쉼터설치, 섬진강캠핑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

로 관광객을 끌어 모으며 인기를 끌었다. 또 기차역이 없는 지역임에도 역발상 마케팅을 동원해 테마열차, 레일그린 열차 등을 통해 여행객을 모집하고 여행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다양한 팸투어 행사를 진행해 순창을 전국에 알린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통장류의 독보적 브랜드를 활용해 도시 학생들을 체험관광으로 이끌고 순창지역에서 지라는 청정산물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도 순창만의 색깔을 내는 관광시책으로 인정받았다.

관련해서 지난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는 수상자와 언론인, 여행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순창군은 마케팅 분야 대상을 수상했으며 황순주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황 군수는 "순창군은 지난해 강찬산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관광객 340만 여명을 유치해 전국의 관광객을 순창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는 전국최대 규모 체계산 구름



다리 설치사업과 수(水)체험 센터 등 순창군의 독특한 관광자원 개발도 시작한다며 꼭 500만 관광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클럽은 전국 200여개 여행업체 및 유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다. /순창=이원일 기자

남원시, 도로환경 조성 393억원 확보

운봉읍 임리~매오 도로 확포장 완공키로



고품질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남원시가 올해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고품질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남원시가 올해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393억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유관기관의 사업비를 포함한 것으로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우선 읍면지역에서도 확포장 사업에 34억원을 들여 4개 노선(L=6.04km)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한다. 운봉읍 임리~매오 도로 확포장공사(L=2.2km)는 예산을 집중 투입해 올해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서남원IC와 노안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흑송~장곡 도로 확포장공사(L=1.74km)도 올해 마무리한다. 흑송~장곡 도로가 완공되면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대구고속도로 동남원IC 남원방면 도로도 개통을 서두르고 있어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추진한다.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4개 노선(L=3.84km)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착

공한다. 산내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항교 재가설 사업(L=0.3km)이 올해 착공되며, 건지~갈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L=1.4km)은 신규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도로 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한 대강면 생암 등 4개 마을 진입로 확포장(L=1.83km) 사업에 사업비 11억원이 투입된다. 도로 유지관리에도 12억원을 지원한다.

또,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시행하는 오수~월라 도로 확포장사업과 육과~

적성 도로 확포장사업도 연내 완공한다. 이밖에 유관기관에서도 11개 현장에 대하여 3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에 나선다.

남원시는 각종 도로관련 사업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시행 집 고쳐주기 등 맞춤형 정책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완화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전했다.

군은 기초수급자 주거임차급여를 비롯해 수선유지 집수리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희망과 나눔의 집 고쳐주기사업 등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임차급여는 9억8000만원을 확보해 매월 약 900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주택 거주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사업으로 6억7000만원을 들여 주택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한다.

더불어 4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과 저소득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으로 장애인 주거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노후된 주택



개보수사업인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면에 신청을 하면 소득·재산·부양의무자·근로능력 등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해 사업을 실시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시책을 펼쳐 주거분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농·특산물 판매 직거래 장터

26일까지... 딸기·꽃감·한우·황진이주 등 판매 주력

남원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자매결연 도시인 서초구청, 구로구청, 강서구청, 광양시청과 함께 수도권 중 유통인구가 많고 국내 최대 농산물 집산지인 가락시장 내 위치한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가락물과 그밖에 과천경마장 및 전북 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남원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설 명절 특수를 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설 직거래장터에는 남원산 지류통에서 공동선발한 '춘향애인' 딸기를 비롯하여 꽃감, 각종 나물과 남원축협의 참어우 한우 및 식품업체에서 생산한 김부각, 추어탕, 한과, 떡국, 꿀, 묵, 떡 및 2016 전통주평의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황진이주, 주몽복분자주 등 전통주와 남원만의 명절 특산품인 묵기, 병풍, 허브제품을 수도권 대도시에서 홍보·판매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남원시는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것으로 생산되는 참이슬, 남원묵기 등 제수용품 및 각종 선물 세트를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남원시 인터넷 쇼핑몰인 사이버장터(www.loveenamwon.co.kr)를 통한 인터넷 홍보 판매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춘향골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생육재생기 관리 요령 제시

임실군은 월동 작물의 생육재생기 관리 요령을 제시하고 고품질 맥류 생산을 위해 월동 후 재배기술 지원에 팔고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맥류 수량 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생육재생기에 철저를 기하며 특히 추위를 막고 토양수분을 알맞게 조절하는 등 건전생육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맥류는 습해에 약한 작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동사하거나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배수로 정비를 통해 고인 물이 잘 빠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웃거름 시기는 2월 중·하순경 식물체를 뽑아 새뿌리가 2~3개 나온 것을 확인하고 사용하며 생육 재생기는 10a당 4~5kg을 1차에 주고 20일 후 2차로 나눠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기술센터 관계자는 "맥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월동기와 생육재생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기술지원 강화로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 치안활동 마을좌담회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금과파출소(소장 조병길)에서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역동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고자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파출소장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마을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좌담회는 금과파출소 신축청사 이전, 신년을 맞이하여 새롭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매일 2~3개 마을을 방문 경로당에 모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외지차량 기록부 비치 홍보 및 작성방법, 전화금융사기 유형 및 피해사례 설명, 빈집 절도예방을 위한 자체 대비 요령 및 야간 운동(산책)시 교통사고 예방 요령 등을 설명하고 특히 어르신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대처방안, 최근 빈발하고 있는 빈집절도 예방법, 겨울철 화재예방 등으로 노인층 취약범죄를 중점으로 눈높이에 맞춘 홍보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은 "파출소장이 직접 찾아와 알뜰하게 설명하니 금방 이해가 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병길 소장은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마을좌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원일 기자



고창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개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민선 6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평가를 위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박우정 군수와 군 간부공무원, 공약이행평가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사업별 담당팀장 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본인토의와 분과별 의견수렴결과 발표 순서로 이뤄졌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이번 평가에서 민선 6기 고창군 공약사항 6개 분야 32개 세부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출산장려금과 무료예방접종 확대 등 10개 사업은 완료, 22건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행진척이 남아있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그중,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를 6세에서 60세부터 확대해 매년 2만여 명의 군민이 혜택을 받게 된 건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 5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된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공약평가 회의를 진행한 이삼복 평가단장은 "이번에 제시된 자문 의견이 향후 공약 추진에 충분히 반영되는지도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며 공약 추진에 대한 평가단의 꾸준한 관심과 평가 의지를 피력했다.

박우정 군수는 "공약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그 성과가 군민들에게 반드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창군은 공약이행을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군민과 소통하며 발전의 토대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민의 날 기념행사 일정 확정

순창군이 올해 제55회를 맞는 순창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4월 14일, 제12회 순창장류축제 일정은 10월 20~22, 3일간으로 확정 발표했다.

순창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4월 14일 일품공원 일원에서 개최기로 했으며 4월 15~16, 2일간 개최 예정인 제55회 순창군민체육대회와 연계 추진키로 했다.

군민의 날은 군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향토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읍면민의 날과 중복되지 않도록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행사는 군민기원제, 축동행렬, 풍물한마당, 육천줄다리기 등 대동 프로그램과 자랑스럽던 군민의 장 시상식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제12회 순창장류축제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 된다. 올해 장류축제는 가족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일품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의 역사와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차별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장류의 세계화를 위해 제2회 세계소스박람회도 축제기간 중에 운영해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고기, 줄기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풍성한 감동축제로 준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 /순창=이원일 기자